



기꾸찌 장로님의 인도로 킴볼 대관장님을 방문한 한국 성도들

한국 신권 지도자 제148 반연차 대회 참석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교회 반연차 대회에 서울 스테이크 최 동헌 부장과 박 순종 축복사 그리고 서울 서 스테이크 김

차봉 부장과 인천 와드 허 채 감독이 참석했다.

이 일행은 하와이 신전, 로스엔젤리스 신전, 솔트레이크 신전을 방문했으며 요시히고 기꾸찌 장로의 안내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을 만나 한국 성도의 사랑을 전했다고 한다.

대전지부 2차 공사 준공

서울 서 스테이크 대전지부는 1978년 8월 12일에 성도들이 바라던 2차 공사가 완료되어 아늑한 예배실을 갖게 되었다.

800여 평의 대지에 250평의 건물이 들어설 이곳에는 현재 2차 공사가 완료되어 예배실과 5개의 분반 공과 교실, 지부장실, 서기실, 상호부조회실, 침례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새로 준공된 대전지부 건물



계보 전시회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 시청앞 지하철 전시장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서울 선교부 주최로 계보 전시회가 열렸다. 이 기간에 방문한 방문자 수는 2만 1천 명이 넘는다. 이 전시회는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가져 선교사와 회원의 지혜와 아이디어로 준비되었다. 이 전시회의 목적은 계보가 종교의 일부가 되어온 한국 백성들에게 계보는 조상을 숭배하고 찾아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계보야말로 자랑스러운 전통을 유지하며 가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영원한 가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에프 레이 하킨스 서울 선교부장은 "한국의 전통적인 조상 숭배 사상과 교회 계보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으려고 계획한 이 전시회는 한국에서의 선교 사업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할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전시회는 5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제1부에서는 고대 사람이 계보 사업을 행했던 목적을 설명하였고 또한 바쁜 현대인들이 왜 계보 사업을 행해야 하는가를 뿌리의 저자 에릭스 헤일리의 말을 인용하여 계보는 가족의 단합과 일치 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제2부에서는 솔트레이크시티 근처에 있는 교회의 화강암 기록 보관소를 소개하였으며 여기서는 자연과 인간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기록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과 마이크로필름 촬영기와 판독기를 전시하였다.

제3부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계보 기록을 전시했으며 여기에는 13세기 경의 기록도 있었다.

제4부에서는 개인 기록의 필요성에 대해



계보 전시회 전경

설명했다.

제5부에는 말일성도는 왜 계보 사업을 행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서는 영원한 가족,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 신전 의식 등을 설명했으며 교회 영화 "첫번 시현"과 "행복의 추구"를 번갈아 상영했다.

신학연구원 축제

10월 2일로 개교 6주년을 맞는 신학연구원에서는 4일부터 6일까지 연3일 동안 특별 강연회, 심포지움, 연극, 연주회, 카니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태버내클 축제를 열어 내외 귀빈, 교수, 학생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개교를 축하했다.

특별 강연회에서는 서 회철 원장, 정 윤고등평의원, 유 종렬 형제 및 하킨스 서울 선교부장께서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주는 목표," "생의 좌표," "자유" 등의 연제를 가지고 감명 깊은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날까지 모든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별히 마지막날 운동장에서 벌어진 카니발에는 약 200쌍의 형제 자매들이 마음껏 젊음을 꽃피웠으며 각 쌍이 촛불을 들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불로 각자의 신앙의 불을 붙임으로써 사흘간의 축제의 막을 내렸다.

부산 지방 대회



말씀하는 이호남 선교 부장

지난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78년도 4/4분기 부산 지방 대회가 열렸다. 이번 지방 대회는 이호남 형제가 부산 선교 부장으로 부임한 후 처음 갖는 대회였다. 이번 대회 주제는 교리와 성약 88장 81절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였다. 영적인 말씀 순서에서 도 길회 부산 지방 부장은 “시온의 대업에 힘쓰라”고 강조하셨으며 이호남 선교부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므로 내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참된 교회의 진리를 알았으니 우리는 이 기쁨을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부산 지방부는 현재 스테이크 설립의 꿈을 안고 열심히 선교 사업을 행하고 있다.

선언 역원을 지지하는 성도들



신학연구원 졸업식 및 입학식



졸업식에서 말씀하는 한인상 지역대표

한국 신학 연구원 제3회 졸업식과 78학년도 제2학기 입학식이 9월 9일 오후 3시 신촌에 있는 한국 신학 연구원에서 있었다.

한인상 지역대표, 김창선 서울 서스테이크 부장, 최욱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 초청 인사들 모신 가운데 시작된 이 모임에는 곳곳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입생과 졸업생 200여 명과 재학생 및 학부모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식이 끝난 후 재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졸업생을 위해 마련한 졸업 축하 떡으로 특별한 정을 나누었다. 이어서 5시부터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동문회가 있었고 동문회장으로는 제2와드 조규영 감독이 선출되었다.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



서울 스테이크 제 4 회 종합 체육 대회

서울 스테이크는 10월 3일 연례 행사로 갖는 스테이크 체육 대회를 600여명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 상고에서 개최하였다.

초등학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오락 게임과 구도자와 역원과의 우정 증진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오전에 육상 경기와 장애물 경기가 있었고 이어서 구도자와 선교사가 한 팀이 되어 신권 지도자들과 우정 축구 대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응원전을 시작으로 개척자의 길, 승마 릴레이, 삼인 사각, 줄 다리기, 단축 마라톤 등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번 체육 대회의 종합 우승은 1와드가, 우수상은 8와드가, 우등상은 3와드가 각각 차지하였다.

서울 서 스테이크 운동회



서울 스테이크 운동회

서울 서 스테이크 종합 체육 대회

서울 서 스테이크는 지난 10월 3일 서울 대신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종합 체육 대회를 가졌다.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의 개최사로 시작된 이날 경기는 1부에 달리기, 던지기, 뿔 튀기 등 육상 경기가 있었으며, 2부에는 축구, 농구, 어머니 배구, 어린이 피구 및 단체 경기, 응원전이 펼쳐져 참가한 모든 회원이 선수로 뛰었다.

이번 체육 대회의 최우수상은 2와드, 우수상은 9와드, 장려상은 7와드가 각각 차지했으며 응원상은 화곡 지부, 입장상은 2와드가 차지하였다.